



# 4·3생존자·유족 62명이 나눈 ‘치유의 경험’

어제 트라우마치유센터 ‘치유를 나누다, 마음을 잇다’  
문학·사진·미술 결과물 전시… “다시 불러보는 이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그날이 오면 이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싶습니다.” 4·3유족이자 생존희생자인 윤옥화 어르신은 4·3 당시 총뿌리를 겨누던 군인들 앞에서 자신을 치마폭으로 감싸 안았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글을 써내려갔다.

“제 고향 연미마을은 정겨운 곳이었습니니다. 하지만 4·3이 그 모든 행복을 앗아갔습니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찾은 고향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니다. 쓰린 마음에 흐르는 눈물만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4·3때 할아버지, 아버

지, 남동생을 잃은 4·3유족인 강춘희 어르신은 그 고통의 시간을 ‘강물처럼 흐른 세월’이라고 표현하며 행복했던 어린시절을 떠올렸다.

1일 제주시 이도2동 나라키움 제주마루 2층에 있는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4·3사건으로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들이 직접 남긴 글과 그림, 사진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센터가 올해 초부터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치유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모은 첫 전시 ‘치유를 나누다, 마음을 잇다’다.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62명



1일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열린 ‘치유를 나누다, 마음을 잇다’ 전시.

박소정기자

이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문학·미술·사진으로 남기며 치유의 경험을 이어갔다. 전시는 이들 한명 한명이 직접 남긴 이야기가 중심이 됐다.

‘보고싶은 부모님’, ‘보고싶은 어머니’, ‘보고싶은 언니’ 등 종이 위에 손글씨로 써내려 간 21명의 어르신들의 글에는 오래 말하지 못했던 심정과 고마움·미안함·다짐의 마음을 전한다. 4·3의 기억을 담으며 “그림을 그리는 동안 모든 것

으로 부터 해방되는 느낌으로 편안한 시간이었다”는 21명의 어르신들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생각을 색과 형태로 풀어낸 개인·공동 작업물을 통해 국가폭력으로 인한 상처와 회복의 길을 시각적으로 보여줬다. 19명의 어르신들은 자신의 일상, 기억의 장소, 소중한 사람과 물건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그 안에 얹힌 이야기를 나눴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세대 잇는 해녀문화”… 가문해녀 아카이브

내년 유산 등재 10년  
첫 기록 사업 사진전도

제주 해녀문화를 대대로 이어온 해녀 가문에 대한 아카이브 사업이 추진된다.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협회는 내년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앞두고 ‘제주가문해녀 기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15세기 이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공동체를 지켜온 제주 해녀는 단순한 생업을 넘어선 여성 생계노동 공동체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해녀의 정체성을 가문의 계보로 이어가는 이들을 기록한다.

이 사업의 출발점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제주시 뽕문도 뮤지엄에서 ‘제주가문해녀’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시어머니와 며



홍순화·박숙희·고려진 해녀. 양종훈 작가 제공

느리, 어머니와 딸, 자매, 시누이와 올케, 사돈까지 물질을 이어가며 함께 바다를 지켜온 12가문 해녀들의 초상 사진, 물질 도구 기록, 생애 구술 기반 아카이브 등을 담은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협회 이사장인 양종훈 사진작가는 “이번 전시는 가문해녀 기록 사업의 출발점”이라며 “제주 해녀 문화를 정확하게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시는 이달 14일까지 이어지며 관람시간은 9시~18시이다. 박소정기자

## 우당·탐라도서관, 내년부터 휴관일 변경

우당 월요일→금요일

탐라 금요일→월요일

내년부터 제주시 우당도서관과 탐라도서관의 휴관일이 변경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 5일부터 우당도서관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탐라도서관 휴관일을 금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시 동·서부지역 공공도서관은 권역별 동일한 요일에 휴

관하면서 인근 지역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기존 동부지역 우당도서관과 제주도서관은 월요일, 서부지역 탐라도서관과 한라도서관은 금요일 휴관으로 운영됐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대표 도서관인 한라도서관 주관으로 제주시·서귀포시 소속 공공도서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휴관

일 조정 회의를 열어 이같이 각각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도서관 측은 “이번 조정으로 제주시 동부와 서부 지역의 휴관일이 분산돼 특정 도서관이 휴관하더라도 인근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휴관일 변경을 통해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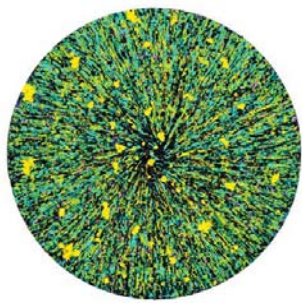
## 문화가 쏙지

‘푸른 꽃’을 그리다

이수진 열한 번째 개인전

이수진 작가가 제주시 연동에 있는 담소창작스튜디오 갤러리에서 열한 번째 개인전 ‘내안의 블루’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푸른 꽃’을 주제로 한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오래 전 독일 시인 노발리스가 노래한 영혼의 이상이자 인간이 끝없이 동경하는 내면의 빛의 상징”인 푸른 꽃을 내적 탐구하며 그려왔다. “푸른 색채는 내면의 평온과 치유의 에너지로, 주변의 색들과 어우러지며 삶이 품은 신비로움



이수진의 ‘내안의 블루’.

과 소중함을 드러낸다”는 작가는 원형의 화면에 중심에서 퍼져 나가는 색과 빛의 흐름으로 이를 보여준다.

전시는 오는 12월 16일까지 이어진다. 전시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다. 박소정기자

포정먹그림 정량문인화전

포정먹그림사랑회가 열여섯 번째 정량문인화전을 열고 있다.

전시에는 고철주 회장을 포함한 44명의 회원이 그동안 갖고 닦은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꽃, 난, 제주의 가을 풍경 등 그림에 글과 시가 어우러진 문인화 작품들이다.

이들을 지도한 포정 양태호와 안서조·허익선·고성대·강수영 등 4명의 자문위원의 작품도 걸린다.

전시는 제주문화예술포럼 제3전시실에서 오는 12월 4일까지 이어지며 전시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박소정기자

오는 10일 박보오리 개인전

박보오리 개인전 ‘땀도 없고, 뭇도 없는’이 이달 10일까지 제주시 북성로 대안공간 스튜디오125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제주와 베를린을 오가는 작가의 이중적 삶에서 비롯된 ‘어디에도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없는 생의 구조’와 ‘떠도는 몸’의 내밀한 존재론을 사진, 설치, 영상 4점을 통해 구체화한다.

작가는 유목적 삶을 낭만으로 포장하는 대신, 숨겨진 분열과 이동을 드러낸다. 전시는 무료이며, 일요일은 휴관한다. 문의는 전화(010-9036-3551)로 하면 된다. 김재현기자

## 예술공간 오이 연극 ‘허’ 말모이연극제 작품상

제주 작품 수상 처음

배우 김정미 연기상

제주 예술공간 오이가 연극 ‘허’로 말모이연극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다. 말모이연극제는 전국 지역색과 사투리를 담은 작품을 모아 선보이는 축제다.

1일 예술공간 오이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서울 혜화역 인근 연극센터에서 열린 제7회 우리말 예술축제 말모이연극제에서 예술공간 오이

의 작품인 연극 ‘허’가 최고상인 작품상을 수상했다. 말모이연극제에서 제주 작품이 작품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여인’역을 맡은 김정미 배우가 연기상도 받으며 연극 ‘허’가 2관왕을 안았다.

‘착한 거짓말’을 주제로 오상운·김소영가 연출한 연극 ‘허’는 제주어로 진행되는 작품으로, 지난해 초연된 이후 올해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다듬어져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박소정기자

## 바흐부터 비틀즈까지… 올라비올라의 울림

5일 문예회관 대극장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은 이달 5일 오후 7시 30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올라비올라의 B(바흐) to B(비틀즈)’ 공연을 선보인다.

‘올라비올라사운드’는 국내 대표 비올리스트 오순화 음악감독이 1999년 창단해 27년간 한국음악의 모티브를 지닌 클래식음악을 세계무대에

선보여 온 비올라 앙상블이다.

이번 공연은 바흐에서 비틀즈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을 비올라 특유의 울림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팬텀싱어’의 베이스바리톤 김병민이 콘서트가이드로 참여해 각 곡의 시대적 배경과 음악적 특징을 해설한다.

예매는 제주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 수 상 제6회 임업인의 날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국립산림과학원장상



고 창 문  
(본회 공동대표)



고 상 순  
(본회 이사)

본회 공동대표님과 이사님께서 **영예로운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제주생명의숲 이사장 고 윤 권**

## 수 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고 창 문  
(사)제주생명의숲 공동대표·한림로타리클럽 회장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 모임 일동**

## 승 진 LG화학 사장



김 동 준  
사대부속고등학교 1회 졸업, 한양대학교(공업화학)·워싱턴대학교(경영학 석사, MBA)  
1996년 LG 화학 입사, 2024년 12월 부사상 승진  
(母 : 김선자)

**LG화학 사장**으로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형제 가족 일동**

이수인 김경아, 백선행 김은경, 김제춘 양선정